

차례

프로그램 소개	3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 이해	7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협회의 역할	29
정경록(충남사회적기업협회 부회장)	
사회적기업 운영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37
조성희((사)충남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사례발표 - 사회적기업 ‘(사)국선명상협회’	57
이종대((사)국선명상협회 사무국장)	
■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	
문제는 다시 ‘사회적경제’ 이다.	67
최준(함께일하는재단 LH사회적기업설립지원단 단장)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그 과제들	73
김민숙((사)씨즈 연구원)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81
배연근((주)공생공소 농업회사법인 대표)	

프로그램

13:30 접수
~14:00

14:00 개회 및 인사말
~14:10

14:10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 이해
~15:10 김중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협회의 역할
정경록(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사회적기업 운영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조성희((사)충남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사례발표 - 사회적기업 ‘(사)국선명상협회’
이종대((사)국선명상협회 사무국장)

15:10 휴식
~15:20

15:20 종합토론
~15:50 토론자 1 - 최준(함께일하는재단 LH사회적기업설립지원단 단장)
토론자 2 - 김민숙((사)씨즈 연구원)
토론자 3 - 배연근((주)공생공소 농업회사법인 대표)

15:50 질의응답 및 토론
~16:25

16:25 폐회
~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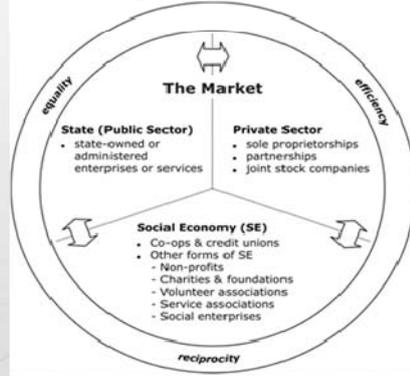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 이해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2011.11.2(수)

사회적경제의 이해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경제란 무엇을 말하느냐?

사회적경제가 뭐여?
(Social Economy)

사회주의 경제?
(socialist economy)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경제민주주의?
(economic democracy)

커뮤니티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사회적 경제란 무엇을 말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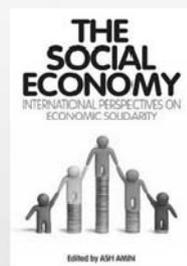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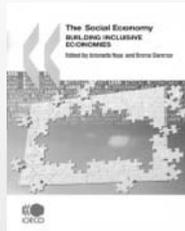
● 사회적 (社會的)의 의미

-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또는 그런 것(사전적)
-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한다.

● 사회적경제의 정의

- it is not part of the Private(For-Profit) Sector
and is not part of the Public(Government) Sector
- ❖ The Voluntary Sector
- ❖ The Non-Profit or Not-for-Profit Sector
- ❖ The Third Sector
- ❖ The Co-operative Sector
- ❖ Community Business Sector

사회적 경제란 무엇을 말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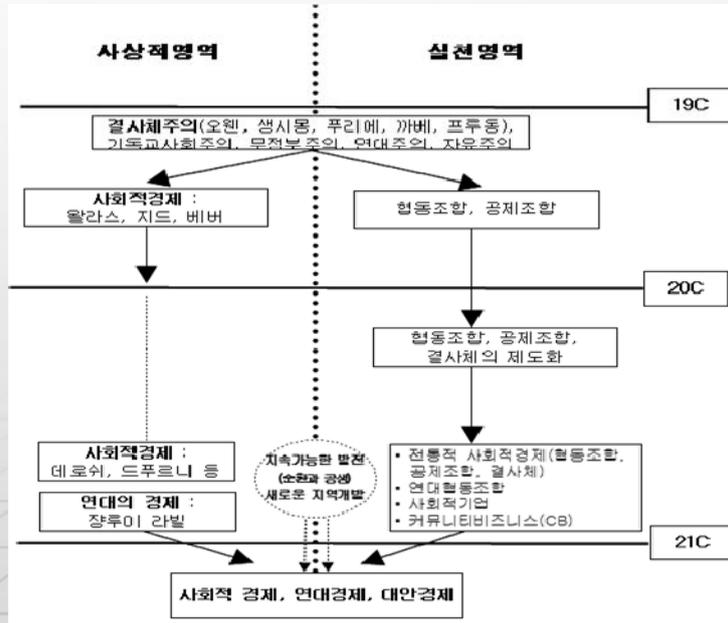
왜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 하는가?

- [사회적기업] 이라는 용어의 협소성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목적 추구를 강조
 -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인증조직에 한정하여 사용
 - 사회적배제자에 대한 고용정책 및 복지정책 수단의 하나
- [사회적경제] 를 이야기하는 이유
 - 일체의 경제활동 영역(생산, 소비, 교환, 분배)에 관여
 - [협의]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응하는 제3섹터, 비영리영역
 - [광의]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경제 모색
 -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의 필요성(관행적 지역발전 모델의 한계)
 - 내발적 발전 필요성 대두 등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회적경제
 -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문제점,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 다양한 사회개혁 사상에 뿌리, 결사체주의, 연대주의
 - [사상적 영역] 사회적경제, 연대의 경제
 - [실천영역] 협동조합(노동자, 신용, 소비자 농업), 공제조합으로 조직화
-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사
 - 산업혁명 초기인 19세기 초반부터 자발적으로 조직
 - 지배적 경제질서와 그 폐해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대응의 산물
 - ❖ 상호공제조합 : 열악한 노동환경, 취약한 생활환경에 따른 생활상의 위험증가
 - ❖ 소비자협동조합 : 기존 농촌공동체로부터 이탈에 따른 먹을 거리 조달체계 해체
 - ❖ 민간단체 : 공동체적인 빈민구제 시스템의 해체
 - ❖ 신용협동조합 : 예금은행의 부재와 고리대금업의 횡포
 - ❖ 노동자협동조합 : 실업자의 증가와 소규모 작업장 및 장인들의 몰락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가?

● 80년대 이후 사회적경제의 확산

- 1980년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 현장 제정
- 1981년 프랑스 총리실에 사회적경제담당 정책조정실 설치, 지원기금 설립
- 1988년 벨기에 알룬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개념 정의채택(1990)
- 1989년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를 다루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개념정의
- 1996년 캐나다 퀘벡에서 사회적경제를 일자리 창출과 개혁의 수단으로 인정
- 2002년 유럽연합 6개 국가가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부서 신설
- 200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연대적 경제에 대한 담론과 결합추세
- 국제기구(OECD와 ILO)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중요개념으로 자리잡음
- 2009년 EU의회 사회적경제 결의안 채택
- 2010년 하토야마 일본총리 '새로운 공공(국민, NPO, 기업,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
- 2012년 UN의 국제협동조합의 해 선포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 Karl Polanyi의 경제

정의 실질적 경제(substantive economy) : 살림살이 경제(삶, 생명활동과 연계)

-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 : 돈벌이 경제(이윤/효용극대화)

❖ 형식적 경제는 교환의 근대적 형태로 간주

● 실질적 경제 개념 통한 주장(거대한 전환, 1944)

- 인간사회에서 물질적 교류는 호혜성(나눔, 관대함, 친절),

재분배, 교환, 가계(자급자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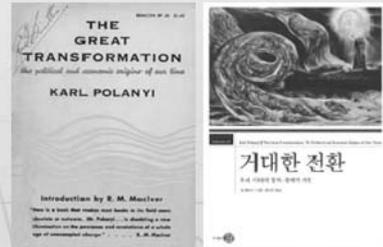
원리를 기초로 하는 제도적 통합과정

-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통합적 과정이 사회적

관계에서 이탈하여 사회를 파괴

❖ 사회의 실체인 인간(노동)과 자연(토지), 화폐(구매력)를 상품화함으로써 사회의 토대를 파괴

❖ 사회적경제란 경제행위중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격을 어디인가?

● 전통적 사회적경제조직

- 단일계층(혹은 이해관계자)으로 이루어진 사회경제조직

- 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 또는 노동자협동조합), 공제조합

●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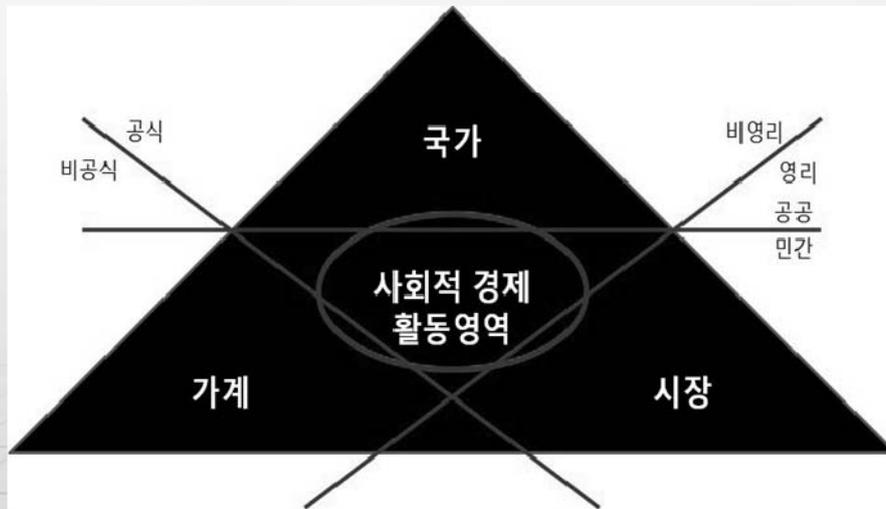
- 다중이해관계자 조직

- 1990년대 이후 구성원(조합원)에 대한 연대 추구 및 사회적기여 목적 추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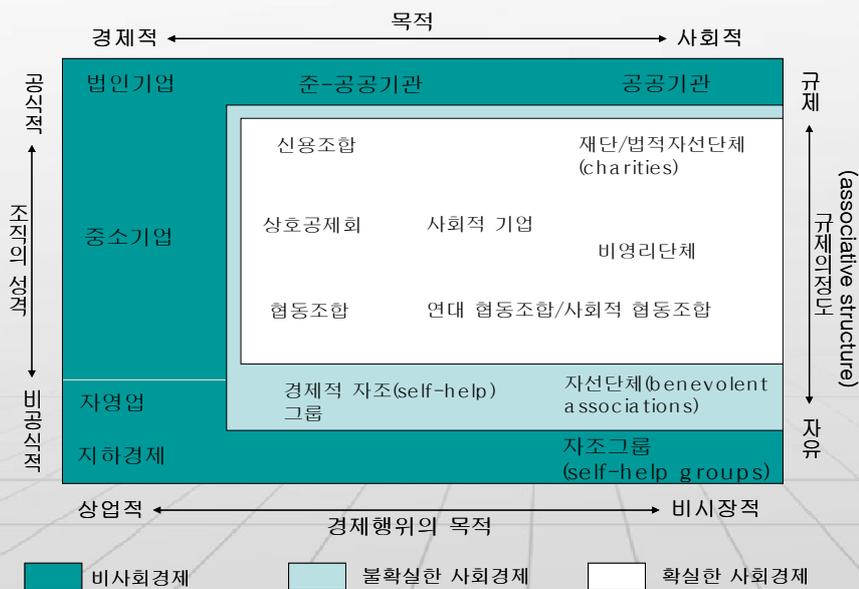
- 각국별 법적 공식조직으로 발달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연대협동조합, 비영리조직(NPO) 등

사회적 경제의 활동영역은 어디일까?



사회적 경제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사회적 경제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성격 I	성격 II	유형분류	세부설명	
국가 ▼ ▼ ○ ○ ○ ○ ○ ○	정부의존 ▲ ○ ▼ ▼ ▼ ▼ ▼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노인생산공동체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경제	자립지향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민간지원기관	대안금융기관(마이크로 크레딧)
				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장	영리	신협, 새마을금고		

출처 : 노대명(2007)

사회적 경제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경제활동의 영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예	
생 산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 사업 조직, 노동자협동조합 등	로컬푸드운동 네트워크
소 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교 환	지역화폐, 아나바다운동단체 등	
분 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등	

출처 : 신명호(2009)

사회적경제의 선진사례(전통적 사회적경제조직)

- 이탈리아 블로냐
 - 이탈리아 협동조합 수도
 - 100만명의 조합원 보유, 전체 근로자의 1/10인 3만 5천명이 고용
 - 지역내 상위 50대 기업에 15개가 협동조합
 - 5천 300여개 협동조합이 4조 8,000억 매출
 - 1인당 생산액 4,200만원, 실업률 3.1%
 - Legacoop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1956년 아리스멘디 신부가 설립한 협동조합
 - 총255개의 사업체로 구성(111개의 협동조합, 120개의 자회사)
 - 교육, 사회보장, 금융과 재정, 연구개발 등에 8만 5천명 종사(2009년)
 - 교육 : 몬드라곤대학등 총8개 교육기관
 - 사회보장 : 라군아로(1967년 설립)가 보험제공
 - 금융과 재정 : 노동인민금고(1959년 설립)
 - 연구개발 : 응용기술연구 협동조합 이켈란(1974년 설립)

사회적경제의 선진사례(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조합
 - 사회적경제조합법 제정(1991년) : 지역사회 전체 이익, 시민들의 사회적통합을 위해 활동, 노동자, 소비자, 지자체를 포함하는 법인, 자원봉사자로 구성
 - A유형 : 사회적서비스(사회, 보건, 교육, 거주시설, 여가 등) 제공
 - B유형 : 사회적 불이익자를 노동시장에 공급(노동통합활동에 종사)
- 퀘벡 연대협동조합
 - 연대협동조합 설립(1997) : 지역발전, 시골마을 소멸, 근린서비스 폐업, 탁아서비스 발전, 노동통합, 고령자를 위한 홈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노력에서 출발
 - 2007년 까지 479개 설립, 현재 300여개 활동
 - 32,000개 협동조합, 39개 공제조직, 850만 조합원, 87,000개 일자리
- 그라민 은행
 -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 창안(1973년)
 -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라민은행 법인 설립(1983)
 - 1993년 이후 흑자 전환, 대출받은 극빈자 600만명의 58%가 절대빈곤 탈피
 - 대출금회수율 99%, 대출받은 빈민의 97%가 여성

유럽연합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 유럽연합 25개국(2007년)

(고용인원 기준)

비중	국 가
10%이상	아일랜드, 네덜란드
5-10%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영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5%이하	그리스,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슬로베니아

주)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고용인원 :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
출처 : CIRIEC,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EESC, 2007

새로운 사회적경제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영국

- 영국내 고용의 대략 7.3%를 사회적경제가 설명(European study)
- 사회적경제가 Bristol 고용의 4.6%, GDP의 4.3%설명, 1,000개의 조직

• 이탈리아

- 2009년 광역의 사회적기업 2만개에서 30만명의 일자리 추정(Iris network)
- 협동조합부문 100만명, 민간단체부문 50만명 일자리 제공

• 미국

- 160만개의 비영리조직, 1천 60만명 유급노동자 고용
- 비영리조직이 미국전체 경제에 공헌하는 비율은 6.7%

• 일본

- 생활협동조합 소속단체수 600개, 회원수 17,317명, 사업총액 136억엔
- 노동자협동조합 취업자수 10,884명, 사업총액 228억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도입배경은?

● 사회적경제의 역사

- 1980-90년대 : 도시빈민운동, 지역자활센터 시범운영
- 1997년 외환위기
 - : 경제적 위기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한계에 직면
 - : 실업극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정책 등장
 - :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과정에 비영리조직 참여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지체 및 논의 계기

- 중앙집권, 정부주도의 분위기로 시민사회영역의 미발달
-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급격한 성장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복지공급 확대 및 시민사회 역할 증대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 실속 없는 성장

- 급격한 성장 이면의 고용 없는 성장 심화
-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의 지역내 취업을 18.5%, 65.9%가 수도권으로 취업
- 1인당 민간소비지출율은 전국 11위 수준으로 낮음
- 재정자립도는 전국 10위 수준
- 취약계층 비중은 53.5%로 전국최고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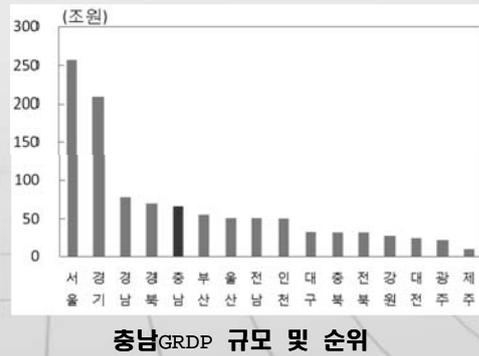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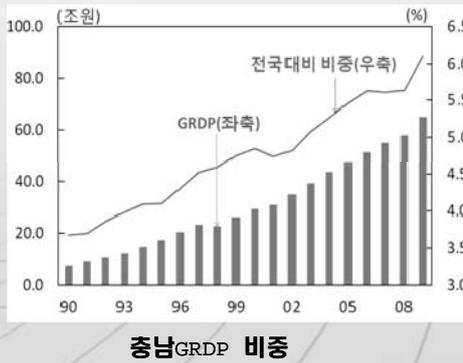
● 수도권 대자본 의존경제

- 수도권 인접 북부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 충남 전체생산액의 43.7%가 지역외 유출(50%는 수도권으로 유출)
- GRDP대비 수출비중은 전국 3위로 높음
- 특정대기업 의존도 과다하게 높음(삼성전자 고용비중 14%)
- 아산시 시세 1,304억 8천만원(2011년)중 삼성이 64.2%차지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단기간내 급격한 경제총량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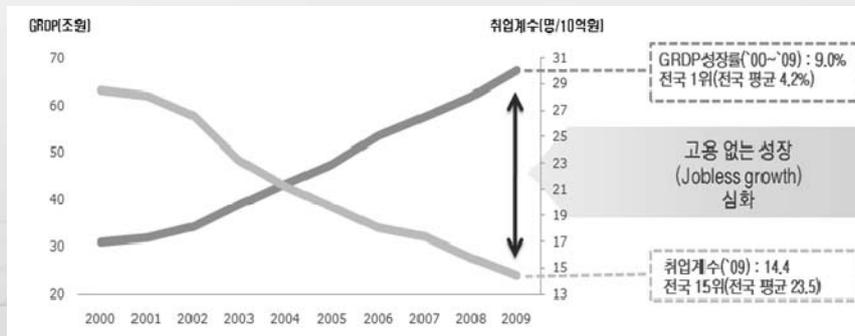
- 지역내총생산(GRDP, 2009년)은 65.1조로 전국의 6.1%
- 90년의 3.7%에 비해 2.4% 상승
- 전국의 5번째로 높은 수준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고용 없는 성장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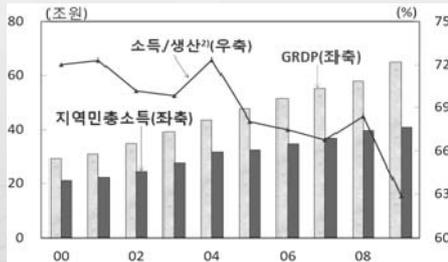
- 2000-09년 연평균 9.0%의 경제성장으로 전국1위
- 동기간중 취업계수는 14.4로 감소 전국 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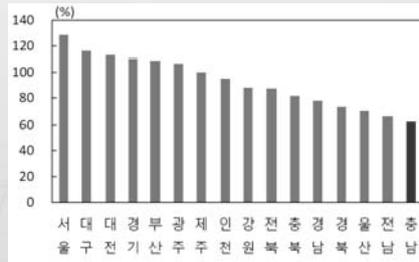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생산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지역민총소득)

- 2009년 충남지역총생산(GRDP)은 12.4% 증가
- 동기간중 총소득은 3.2% 증가에 불과
- 생산대비 총소득 비율은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2009년)



충남지역 GRDP 및 지역민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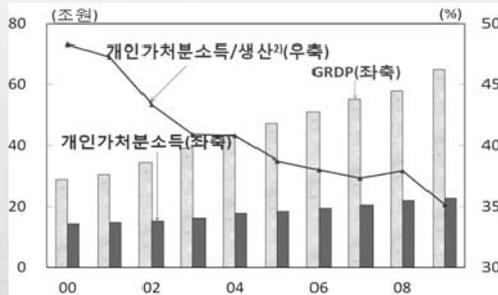
시도별 생산대비 지역민총소득 비율

- ❖ 총생산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계상
- ❖ 총소득 : 기업본사, 근로자주민등록지 기준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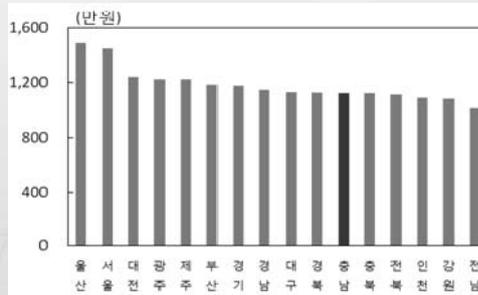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생산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개인가처분소득)

- 2009년 1인당 1,124만원으로 1인당 GRDP의 33.7%에 불과
- 전국 16개 시도중 11번째



충남지역 GRDP 및 지역민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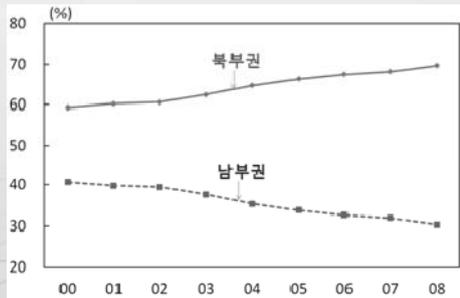
시도별 생산대비 지역민총소득 비율

- ❖ (개인)가처분 소득 : 개인소득 중 소비 및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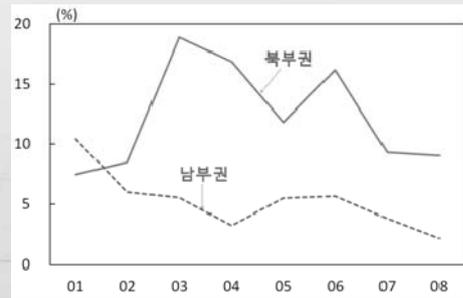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권역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

-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GRDP비중은 2000년 59.4%, 08년 69.7%로 증가
- 2001-08년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GRDP는 연평균 12.3% 성장
- 나머지 시군은 동기간중 5.3% 성장에 그침



권역별 GR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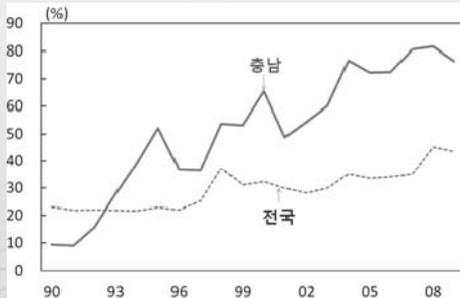


권역별 GR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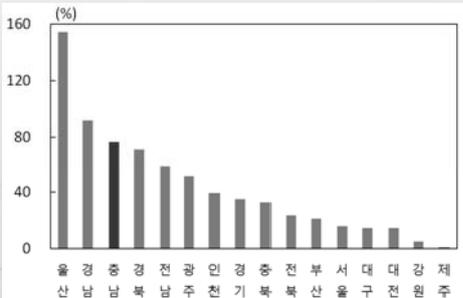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지역경제의 수출 의존도 심화

- GRDP대비 수출비율 1990년 9.4%에서 2009년 76.5%로 상승
- 16개 시도중 울산(154.1%), 경남(92.3%)에 이어 3번째 높은 수준
- 순이출(순수출 포함)의 지역경제성장 기여율이 94.9%로 매우 높음



GRDP 대비 수출비율 추이



시도별 GRDP 대비 수출비율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어느정도일까?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유형분류	세부설명	조직수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① 장애인 보호작업장	15
	② 노인생산공동체	243
	③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④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⑤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81
	⑥ 노동부 사회적기업	17
	⑦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32
	⑧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0
	⑨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2
민간지원기관	⑩ 대안금융기관	3
사회적 경제조직 (노대명의 분류기준)	⑪ 시민단체(서비스공급형)	359
	⑫ 노동자협동조합	
	⑬ 소비생활협동조합	17
	⑭ 농업	426
	⑮ 수협	8
	⑯ 산림조합	18
	⑰ 산업	105
	⑱ 새마을금고	62
	⑲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희망업체	116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어느정도일까?

충남의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현황(2011.8)

구분	계	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 체회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2010	2011	2010	2011	
계	114(4)	17	4	17	41	11	22(4)	2
천안시	14	4	1	3	4	1	1(1)	
공주시	8(1)	2		1	2	1	2	
보령시	2				1		1	
아산시	9	1	2	2	3		1	
서산시	7	1			4		2	
논산시	11	2		2	4		3	
계룡시	1						1	
금산군	7	2		1	3		1	
연기군	6	3		1	1		1	
부여군	7	1		1	1	2	1	1
서천군	13(1)			3	7	1	2(1)	
청양군	6			1	2		2	1
홍성군	6		1	2	1	2	0(2)	
예산군	8(2)				5	2	1	
태안군	4				1	1	2	
당진군	5	1			2	1	1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어떻게 할까?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 사회적경제조직 595개 단체 의식조사
- 조사대상조직의 82.2%가 사회적경제를 알고 있음
- 자신의 조직이 사회적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조직도 45%가 인지하고 있음

사회적경제부합여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부합함	91.5	8.5
보 통	70.6	29.4
부합하지 않음	45.0	55.0
전 체	82.2	17.8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어떻게 할까?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 충남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음

구 분	인지비중(%)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50.4
마을기업<행정안전부>	42.7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38.4
노동자협동조합	35.2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34.5
대안금융기관<마이크로크레딧>	3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0.6
커뮤니티비즈니스<지식경제부>	20.7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반은 어떠한가?

•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가능성

- 정부와 민간지원을 받은 조직중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부분이 조직이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자립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구 분	매우 어려워짐	어려워짐	큰문제 없음	전혀문제없 음
장애인보호작업장	9.1	90.9		
노인생산공동체	16.1	80.6	3.2	
자활공동체	15.8	7.3	7.9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17.0	78.7	4.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준비단체	17.8	75.6	6.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0.0		
시민단체	20.0	76.0	4.0	
금융관련조직(대안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14.9	74.4	10.7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현황은?

• 자치단체 차원

-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운영
 - : 사회적경제정책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기능 등
 - : 전문가, 공무원, 연구원, 도의원, 실천가 등으로 구성
 - : 지사보고, 도 정책으로 도입을 위한 사업발굴 및 예산신청
- 충남사회적경제 T/F팀 설치운영
 - : 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내에 T/F팀 설치
 - : 사회적기업(고용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 지방의회 차원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 구성 및 운영
 - : 도의원, 전문가, 사회적기업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진 활동
 - : 집행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지원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현황은?

● 중간지원기관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 2011년부터 충남발전연구원 부설로 운영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 충남사회적경제 연구회 운영(11회 연속워크숍 운영)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 실태분석, 활성화 과제 전략 모색
 -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

● 사회적경제 실천가

-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2012년 예산안)

구 분	사업명	도비(백만원)	비 고
계		1,569	
신규(예산)	사회적경제5개년계획 수립	50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50	
	사회적경제활동가 대회	50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계획수립후 추진
	사회적경제전략기획사업 (시군단위)	150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	30	
	사회적경제 내부거래생태계 조성	50	
신규(비예산)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추진	-	
	사회적경제 육성조례 제정	-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	
기존사업	사회적경제정책 지원역량강화	50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원	570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569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문제점은?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부족
 - 사회적경제조직 취약, 경험부족
- 충남도의 지역경제가 지나치게 외부의존적
 - 수도권으로 부터 의존한 기업에 의존, 수도권 의존도 갈수록 심화
- 사회적경제의 성장기반 갖추기전 영리기업과 경쟁 강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 및 실적주의 평가, 영리기업과 차별되지 않는 경영방식
 - 필요자금 지원을 위한 대안금융기관 접근기회 제한
-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시책의 협력 및 연계체계 미흡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등 담당부서 상이
- 기초 및 커뮤니티 단위 중간지원조직 부재
 -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실천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이지 부족
- 사회적경제 조직 지정건수 달성목표에 대한 부담 상존
 - 사회적기업 양적달성 목표가 부담, 질적향상, 주민역량 및 공동체기반 강화 소홀가능성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제는?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자, 도민, ngo의 올바른 이해전제
 - OECD, EU에서 공식용어사용, 사회적기업과 용어 혼용,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 사회적경제 실현위한 내생적 지역발전전략 구축 필요
 - 관행적 지역개발 전략이 아닌 내발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의 전환
-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육성 필요
 - 광역단위, 기초단위 및 커뮤니티 단위 중간지원 육성
 - 창업, 운영, 자금조달, 인재육성, 상담, 홍보, 코디네이터, 조사연구 기능수행
-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의 연대 강화
 - 도, 시군-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 개발조직간 거버넌스 강화
- 사회적경제 블록 구축을 위한 노력 요구
 - 비정부 부문 스스로 노력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블록 구축
-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대안금융체제 확립
 - 마이크로크레딧 및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통한 재원지원 방안 모색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회 역할

정경록(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회의 역할

충남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정경록

1. 충청남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역할

충청남도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건강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생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가치 실현과 성장을 도모하며 사회적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이러한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회원단체와 관련된 제도, 서비스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건의
2. 회원단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공유
3. 회원단체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출판사업
4. 회원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5. 회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사업
6. 회원단체가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시·군 토론회

1) 목적

충청남도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과 1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뿌리내리기 위한 조직 간의 연대활동과,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적 활동을 같이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역할

이 토론회는 오래 동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온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직으로 인정받고,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사회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협의회

1) 목표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 추진방향

-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
- 지역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 네트워크 활성화
- 지자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3) 세부실행방안

① 조직사업

i 목표

- 사회적기업 조직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대의기구로 활동

ii 내용

- 회원조직화 . 제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조직화

iii 실행방안

- 실천 활동을 통한 검증과 방향제시

iv 확대

-확대와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는 양과 질이 사물의 양면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은 확대만 되고 강화되지 않으면 막상 일 해야 할 때 아무것도 못한다. 강화만 되고 확대되지 않으면 조직은 대중으로부터 고립 된다.(충남도 양적 팽창)

v 운영방안

-조직운영은 반드시 민주집중의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소수는 다수를 따르고 하부는 상부를 따르고 지부는 중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보다 훨씬 기본적으로 더 우선하여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 있다. 하부가 상부를 따르게 하려면 원칙으로 밀어 부치지 말고 설득하고 교육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하부를 따르게 해야 한다.

② 정책사업1(토론회)

i 목표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파트너십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ii 내용

-충남도청, 각 지자체, 협의회,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확대 및 공감대 형성

③ 정책사업2(워크숍)

i 목표

-소통과 상생의 틀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ii 대상

-사회적기업가 및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iii 내용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강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역에서의 역할정립
-토론 및 토의

④ 네트워크사업(정기회의)

i 목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 향상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여 조직관리 시스템 전문화 구축

ii 내용

-업종별 네트워크구축,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사회적경제 학습조직문화의 틀 마련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

⑤ 교육사업(교육프로그램개발)

i 목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구축

ii 내용

-관리자 능력개발 교육
-종사자 능력개발 교육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활동가(멘토)역량강화 교육

-업종별 맞춤 교육

iii 운영방안

-책에서 배운 이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능력과 결부되어야 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이 된다.

⑥ 홍보사업

i 목표

- 사회적기업의 지역홍보 및 활성화
- 정보와 홍보시스템 구축

ii 내용

- 사회적기업 탐방 프로그램
- 카페홍보
- 소식지 발간
- 내부거래 활성화
- 쇼핑몰 운영

4. 제언

일(직업)의 본질은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재미있는 가?’, ‘잘 할 수 있는가?’이다. 사회적기업은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이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까?”

‘빵을 팔기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위해 빵을 판다.’는 슬로건처럼 영리도 추구하면서 고용도 창출하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 중점으로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중시되는 유럽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과 시장경제와 사회적목적에 접목한 정부주도의 미국의 사회적기업을 결합하여 우리나라에는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법제화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시민들의 경제와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편익제공을 당면목표로 두고 있는 우리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영리추구의 목적이 우리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어, 자기를 태우면서 사회를 밝히는 촛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기업가, 공무원, 학자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듬뿍 안길 수 있는 성공모델을 충남에서 만들어가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운영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조성희((사)충남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충남교육연구소 사회적기업 운영 사례를 통해 본 교육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가능성

조성희 / 충남교육연구소 사무국장

1. 충남교육연구소 소개

충남교육연구소는 충남 지역 교수, 교사 등 교육자들과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 주민이 200여 명이 주체가 되어 '교육 및 교육주체 정체성 재정립, 연구실천 역량 조직, 지역 단위 연구실천 센터 기능, 교육실천 연대 강화'라는 취지를 내걸고 2000년 9월 설립한 '민간 교육 연구실천 단체'이다.

아이들과 지역민의 삶에 필요한,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과 상생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실천적 교육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교육연구소는 2002년 2월 충청남도교육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같은해 3월 충청남도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2010년 5월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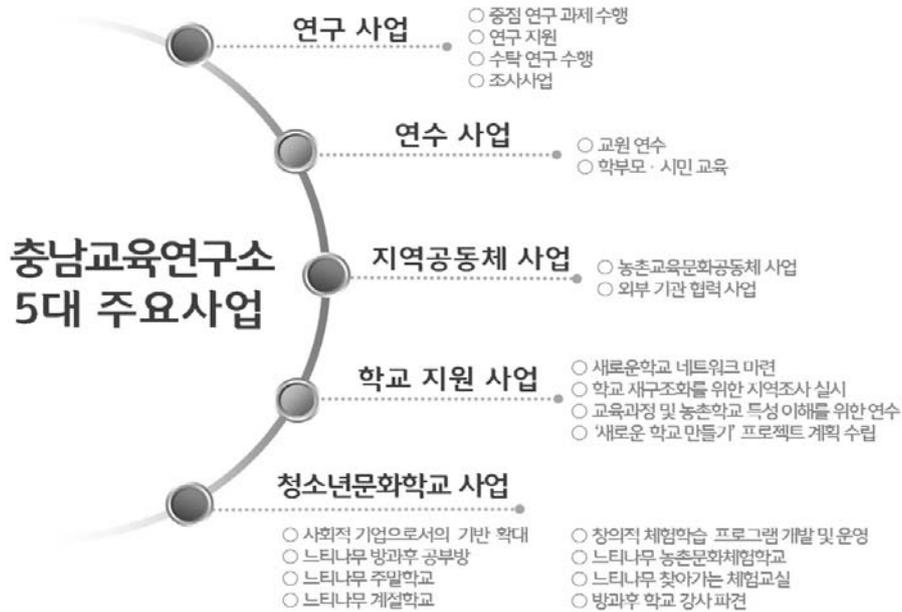
1. 활동 목적

- 학생 및 학교 지원 활동
-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사업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농촌 아이들의 꿈찾기
- 지역 주민교육을 통한 교육주체의 교육력 제고
- 농촌에 대한 이해를 가진 농촌전문교육인력 확보 및 양성
-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살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구조 형성
- 지역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 모델 창출
- 지역주민 및 마을과 연계한 체험활동으로 지역 경제 기여
- 농촌형 교육분야 사회적기업 모델 창출
- 농촌 지역 고용창출

2. 충남교육연구소가 꿈꾸는 비전



3. 사업 내용



4. 수상 경력

-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우수프로그램공모 우수상
- 2008년 지역재단 제1회 지역리더상 농촌교육 분야 장려상
- 2008년 농림수산물부 장관 표창 - 농촌교육복지 분야(사무국장 수상)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제1회 방과후학교대상 지역사회파트너부문 우수상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수행기관 공로상
- 200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우수단체
- 2010년 고용노동부 제1회 사회적기업수기공모전 사회적기업협회장상

II. 충남교육연구소 사회적기업 활동사례

1. 사업 방향

-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쉼터이자 배움터 제공
- 학교와 지역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어촌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의 장 제공
- 방학중 다양한 체험활동 및 도농 청소년 교류의 장 마련
- 농촌의 가치를 살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사업 특징

- 지역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10년에 걸친 다양한 교육활동 경험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 확보
- 폐교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
- 농촌의 가치와 특성을 살린 농촌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
- 농촌 노인층의 전통문화체험 강사 활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마련

- 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교육인력 확보 및 인력 양성
- 현장 교사들의 연구팀 구성 및 지원을 통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 확보
- 전원학교, 돌봄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등 교육정책사업과 연계한 학교 활동 지원
- ‘찾아가는 교육활동’ 등 충남 전역의 학교와 연계한 활동 지속

3. 사업 내용

1) 느티나무 방과후 교실

(1) 활동 목적 : 지역 아이들의 돌봄과 배움이 있는 방과후 공부방

(2) 활동 연혁 및 운영 프로그램

- 2000년 11월 봉현서당 개소
- 2002년 봉현마을학교로 확대
- 2006년 3월 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 방과후 교실로 운영
- 정규 프로그램 : 월~금요일 하루 2시간씩 정규 프로그램 운영
- 특별 프로그램 : 생일잔치, 문화기행 및 여행, 과학 및 환경 학습 등
 - 달팽이 학교 - 환경교실(2006년) / 환경재단 지원
 - 길위의 희망찾기 - 제주탐험대(2007년) / 아름다운 재단 지원
 - 희망삼색 다큐 촬영 - 애니메이션학교 운영(2007년) / KBS 지원
 - 글로벌 중국 문화 체험단 - 상해현장학습(2008년) / 미래에셋 지원
 - 문화예술 공연관람 / 문화바우처, 삼성꿈장학재단 등 지원
 - 우성알토란 충효예교실(2002~현재, 방학중) / 공주시청 지원
 - 도시탐험(2009년)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지원
 - 건축캠프(2010년) / 충남산림환경연구원 지원
 - 한화예술캠프(2010년) / 한국메세나협회의회 지원

<활동 사진> 느티나무 공부방



2) 느티나무 주말학교

(1) 활동 목적

- 농촌 아이들에게 다양한 주말학교 프로그램 제공
- 학교 및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 학교 주말 프로그램 위탁 운영

(2) 운영 프로그램

농촌 청소년 진로탐험대, 독서탐험대, 도시탐험, 악동밴드, 도예교실, 목공교실, 자연미술교실, 애니메이션교실, 사진영상교실, 민속극 교실, 선비교실 등

(3) 활동 연혁

- 봉현 논배미 문화교실(2006)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촌마을 연극·영상 이야기마당(2007)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농촌청소년진로탐험대 1 - 네 꿈을 찾아라(2007)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법고창신 한마당(2007) / 국가청소년위원회
- 주말문화예술교실(2007) / 충청남도청
- 골따라 걸어가는 이야기 속의 마을길(200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우리 마을 보물 찾기(2008)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 느티나무 악동밴드(2008)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흙 갖고 놀자 - 농촌 청소년 도예교실(2008)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얼썬 우리 문화 한마당(2008)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농촌청소년진로탐험대 2 - 네 꿈을 펼쳐라(2008)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주말문화예술교실(2008) / 충청남도청
- 나무야 나무야 놀자(2009)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진영상교실(2009) /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 연극교실(2009) /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 풍물반(2009)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선비교실(2009)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우리문화반(2009)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진로탐험대(2009)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독서탐험대(2009)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풍물반(2010) / 삼성꿈장학재단
- 자연미술교실(2010) / 삼성꿈장학재단
- 악동밴드(2010) / 삼성꿈장학재단
- 진로 탐험대(2010) / 삼성꿈장학재단
- 독서탐험대(2010) / 삼성꿈장학재단
- 사진영상교실(2010) /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 백제문화애니메이션교실(2010)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선비교실(2010) / 삼성꿈장학재단

<주말학교>



3) 느티나무 계절학교

(1) 활동 목적

- 농촌 문화와 농촌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
- 문화체험을 통한 도농간 학생 교육문화 교류 및 다양한 체험의 장 제공
- 농촌 지역의 가치와 우리 문화의 맛과 멋을 찾는 문화체험캠프
- 교육청 및 학교 방학중 캠프 위탁운영

(2) 운영 프로그램

진로캠프, 영상캠프, 자연미술캠프, 자원봉사캠프, 도시탐험캠프, 목공캠프, 놀이캠프, 과학캠프, 역사캠프, 다문화비교캠프 등

(3) 활동 연혁

-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공부(2002년 여름, 초중등)
- 농촌의 여름나기(2003년 여름, 초중등)
- 농촌의 겨울나기(2003년 겨울, 초중등)
- 우당당탕 원두막 짓기(2004년 여름, 초중등)
- 겨울 놀잇감 만들기(2004년 겨울, 초등)
- 자연의 표정을 담은 공간창조
 - 움집 · 전통담만들기(2005년 여름, 초중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농촌문화캠프(2004년 여름, 중등) / 대전 동부교육청
- 겨울별자리와 함께하는 농촌문화체험(2005년 겨울, 초중등) / 고대 천문관측회
-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체험 - 뗏목만들기(2006년 여름, 중등) / 충청남도청, IWO
-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체험 - 새집만들기(2006년 여름, 초등) / 충청남도청, IWO
- 탈 쓰고 얼썩! 썰매 타고 씽씽!(2006년 겨울, 초중등) /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제워크캠프기구와 함께하는 세계문화비교체험
 - 농촌지역 노인들과 함께 ‘봉헌대동제 만들기’(2007년 여름, 초등) / 충청남도청, IWO
- 국제워크캠프기구와 함께하는 세계문화비교체험
 - “나라너머 세대너머 문화나눔 한마당!”(2007년 여름, 중등)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농촌의 자연과 삶에서 찾아낸 과학(2007년 겨울, 초중등) /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제워크캠프기구와 함께하는 세계문화비교체험
 - 극 속으로 풍풍덩(2008년 여름, 초중등) / 충청남도청, IWO,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너를 표현해봐(2008년 겨울, 초등)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영화 만들기(2008년 겨울, 중등)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국제워크캠프기구와 함께하는 세계문화비교체험 - 연극과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 세상(2009년 여름, 초중등) / 충청남도청, IWO,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세계문화비교캠프(2009년 여름, 초등) / 논산교육청
- 비전캠프(2009년 여름, 초등) / 평생교육실천협의회
- 너를 표현해봐! 촌마을 문화한마당(2009년 겨울, 초등)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영화로 만나는 우리들 세상(2009년 겨울, 중등)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영상으로 그리는 나의 꿈, 나의 미래(2010년 여름, 초중등) / 충청남도청,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돌봄학교 진로캠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2010년 여름, 초등) / 석성초, 석양초, 초촌초
- 애들아, 꿈 찾으러 가자(2010년 여름, 중등) / 온양중, 온양용화중, 온양여중, 아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 딱딱딱 겨울 별빛 축제 만들기(2010년 겨울, 초중등)



4) 찾아가는 문화교실

(1) 활동 목적 : 외부 활동이 여의치 않거나 프로그램 및 강사 부족으로 교육 활동이 어려운 학교 및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운영 프로그램

진로교육, 기초부진반 및 특수반을 위한 PREP 교육(읽기능력향상프로그램), 우리문화, 인성교육, 자연미술, 미디어교육, 전통문화체험



5) 농촌문화체험활동

(1) 활동 목적 :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5도2촌마을과 연계해 지역과 함께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

(2) 운영 프로그램

1일 농촌문화체험, 1박 2일 농촌문화체험



6) 학교 연계 방과후 및 특기적성교실 강사 파견

(1) 활동 목적

- 강사 수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
-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및 다양화 모색

(2) 운영 프로그램

문화예술 보육교실, 컴퓨터, 풍물, 민속극, 미디어, 애니메이션, 정보문화, 한자

(3) 활동 연혁

연도	파견 학교	운영 프로그램
2006년도	부여여중	레크리에이션반, 연극반, 미술반
2007년도	수정초	컴퓨터반
	수정초 칠갑분교	컴퓨터반
	청양초	애니메이션반
	하늘꿈학교(새터민학교)	전통문화예술반
	우성초	논술반
2008년도	청양초	애니메이션반
	우성초	논술반
	수정초 칠갑분교	컴퓨터반
2009년도	수정초	컴퓨터반
	우성중	애니메이션반
	우성중	풍물반
	수정초 칠갑분교	컴퓨터반
2010년도	우성중	풍물반
	우성초	컴퓨터반, 풍물반, 우리문화반
	귀산초	우리문화반
	상서초	우리문화반



7) 학교 운영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

(1) 활동 목적 : 다양한 학생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보완을 위한 학교연계활동

(2) 운영 프로그램

소풍, 현장체험학습, 간부수련회, 과학영재교실, 수학여행 등 위탁운영

(3) 활동 연혁

연도	방문 학교	운영 프로그램
2003년도	서산중	수학영재캠프
2004년도	부여 세도중	학급야영
	논산여고	연극반 연수
	서산여중	학년별 야영
	서천여중	학급야영
2005년도	대전 동산중	인성교육캠프
	천안 백석초	아람단 캠프
	천안 인애학교 등 특수학교	장애우 통합캠프
	서산여중	학년별 야영
2006년도	예산 금호초	학급야영
	예산 응봉초	6학년 전통문화체험활동
	대전 노은중	학급야영
	서산 명지중	학급야영
2007년도	공주여중	과학캠프
	공주 유구중	과학캠프
	공주 신관초	과학캠프
	공주 유구중	간부수련회
	부여 양화초	전통문화체험활동
	부여교육청 특수학급	전통문화체험활동
	대전 노은중	학급야영
2008년도	아산 용화고	농촌문화체험캠프
	천안 월봉고	인성교육캠프
	공주 신관초	과학캠프
	공주 생명과학고	인성교육캠프
	예산 응봉초	전통문화체험활동, 자연체험활동
	예산 오가초	지역문화체험활동
	당진 조금초	특수반 현장학습
	아산 둔포고	지역문화재 답사활동
	청양 정산고	환경 및 문화탐방
	공주 유구중	학급야영
	청양 정산중	진로탐색
	공주 우성초	현장체험학습
	공주 봉황중	야영활동
공주 생명과학고 특수반	현장체험학습	
2009년도	아산 용화고	문학캠프
	공주여고	소풍 및 과학캠프
	천안 용소초	현장체험학습
	공주 생명과학고	간부수련회 및 특수반 현장체험학습
	천안 백석초	아람단 야영활동
	청양 정산중	문학나눔 - 소설가와의 만남
	서산교육청	영재반 수학교실
	천안 중앙고	학급야영
2010년도	공주 귀산초	보육교실 자연미술교실
	공주여고	과학반 천문캠프
	천안 중앙고	학급야영
	천안 용소초	소풍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	3학년 야영
	공주자활후견인센터	한부모가정문화체험
	천안 나자렛새꿈학교	전통문화체험

- 8) 농촌학교 컨설팅
- 9) 농촌교사 및 학부모 연수
- 10) 농촌주민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4. 사업 평가

1) 사업성과 : 교육서비스 수혜자 증가

연도	총 수혜자수	취약계층 수혜자수	취약계층 수혜비율
2009	878명	677명	77.1%
2010	1,404명	1,050명	74.8%

2) 사업 대상별 기대효과

(1) 사회적기업 참여자 측면

- ① 문화학교 교사 : 교육 활동에 뜻을 둔 청년일꾼
 -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꿈찾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활동의 장 마련
 -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함께 키워갈 일자리 제공
 - 임용이 되지 못한 교사지망생들에게 새로운 교육활동을 펼칠 기회 제공
 - 문화학교 교사로서의 활동 경험을 통해 교육 전문 역량 함양 기회 제공

② 농촌문화체험담당자 및 교육재료개발자 : 농촌지역 주민

- 인근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농촌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주역으로서 자리매김
- 우리 농촌문화를 새 세대에게 전수하는 전수자로서의 보람
- 농촌문화체험 강사인력 양성

(2) 수혜자 측면

- 농촌 청소년 :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도시 청소년 : 농촌문화체험을 통해 농촌사회와 문화의 가치 인식
- 학교 : 양질의 교육 인적 자원과 교육 프로그램 공급

3) 추진 동력

- (1) 연구소 회원 교수 및 교사들의 교육 역량 활용
- (2) 교육 활동을 통한 다양한 교육 연대 형성
- (3) 농촌 주민들의 삶과 지역 여건에 기반한 농촌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4) 재정적 어려움을 정부나 기업 등의 공모 지원사업 적극 유치
- (5) 지역의 문화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
- (6) 폐교 공간을 지역민들의 교육 활동 장소로 개방하고 공간의 이점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

4) 해결 과제

(1) 폐교 활용의 한계

충남교육연구소의 경우 공주시교육청과 매년 1년 임대 재계약을 맺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 전망을 갖기 어렵고, 계약기간 문제로 시설확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교를 지역 교육문화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

적 지원 등이 따라야 할 것이다.

(2) 교통편과 주거지 산재 등 지역 주민 및 청소년들의 접근성

교통 문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농촌지역에서 교육 활동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 이는 농촌교육 문제를 푸는 열쇠 중 하나이다.

(3)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비 확보 문제

충남교육연구소는 현재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노동부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현재의 재정 규모로는 인력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충남교육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농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어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건비나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전망을 지닌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단기지원이 대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전망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농촌지역 교육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I. 사회적기업 운영상의 해결과제

1. 사회적기업 정의로 살펴본 몇가지 문제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육성법 제2조 제1호).’

1) 사회적목적 실현과 수익 창출의 딜레마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대상의 특성상 자부담에 의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 수익 창출에 주력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정체성 및 목적 실현을 달성하기 어려움.

2)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참여자들이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노동조건 확보

○ 보람만으로 현실적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 취약계층일자리제공형과 같은 임금 수준으로는 사업참여자를 구하기 어려움.

○ 낮은 임금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이로 인한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3)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의 시간

○ 사업 참여시간 못지않게 사업 준비 시간이 상시적으로 필요함.

○ 직무역량 강화 연수 지원 프로그램 거의 없음.

→ 자체 연수 프로그램으로 보완해 나가는 구조

2.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점

1) ‘사회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추진

○ 사업의 공공성과 내용보다는 일자리창출의 효과와 수익성으로 평가(노동부)

2) 사회적기업의 수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경향

○ 사회적기업의 내용성 확보와 안정화보다는 사회적기업의 수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경향(각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창출사업 등)

○ 부실 사회적기업의 양산을 초래할 우려

○ 미리 준비된 곳이 아니면 더더욱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며 지속하기 어려움.

3) 사회적기업 육성은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 부재 또는 혼재

○ 지원 방식에 대한 판단 및 운영 경험 부재

→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먼저 나서기를 꺼려함

○ 사회적기업 육성은 경제부서뿐만아니라 각 부서의 업무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 교육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교육전담 부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 대상에 따라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구조이고 실무 담당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끌어내기에 어려움이 큼.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복투자라고 보는 시각

○ 사회적기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고찰 필요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일반 사기업의 틈새 또는 사각지대에서 공익활동을 펼치면서 고용을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 및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

3. 사회적기업의 연계 사업 추진의 어려움

1) 외부 연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

2) 운영상 어려움

3)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장의 이해 부족

IV.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1. 사회적기업 육성 목적에 대한 고민과 검토

1) 분야의 다양화와 보완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2) 교육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우 육성 목적이 사교육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사회적기업의 다양화를 획득하기 어렵고 일반 학원과의 차별성과 시장파괴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음.

2.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표1> 2012 충남도 신규 시책과 사회적경제 연계 가능 분야 목록
 충남도 경제통상실 내부 자료 자료

분야	시책 이름	사회적경제 연계 내용
기획관리실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식자재공급 SE연계, 로컬푸드사업체 SE전환
	살기좋은 도농 상생마을 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CB연계 에너지자립마을 SB사업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추진
경제통상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모델마련	기업CSR과 SE연계
	영세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지원대상 SE,CB포함
	전통시장활성화 및 경쟁력제고	전통시장을 SE, CB로 육성추진
자치행정국	신청사 편익시설 사회적기업참여	문구,꽃집,구두수선, 음료 등SE참여 SE시범매장 설치
	자원봉사 활성화	SE 자원봉사 지원, 시니어클럽과 연계(재능나눔)
문화체육관광국	창의적 문화콘텐츠 융합으로 신천하지대본 농어촌마을조성	자연생태, 자원, 전통문화 체험마을 조성 사업 주체를 CB,SE로 발굴
	문화바우처사업	SE 진입 지원
농수산국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생협, SE, CB 참여, 농민장터의 SE, CB로 발굴 육성
	친환경농산물 가공 유통 등 마케팅 역량 강화	관련 업체 SE로 발굴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농촌지역리더 육성, 귀촌귀농프로그램과 사회 적경제 아카데미 연계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축산 분료 자원화 사업 SE로 발굴
	농특산물 쇼핑몰 '농사랑' 운영활성화	농사랑 내 SB,CB코너 운영 및 공동 온라인쇼 핑몰 구축
복지보건국	저소득층 자활일자리사업	자활사업단, 공동체 SB로 육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	SB로 육성 및 공공구매 연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SB로 육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SB로 발굴 육성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SB로 발굴 육성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서비스사업의 SB육성
환경녹지국	도농융합사업과 연계한 산촌시범마을 육성	CB로 발굴 육성
	숲 산림휴양단지 조성	SE 발굴 육성
	녹색제품 소비 촉진	SE 발굴 육성
농업기술 센터	농촌자원활용 6차산업화	농촌자원 활용SE발굴 육성
공무원 교육원		사회적경제 기초공동과목 설치 및 전문과정 설 치 운영
홍보협력실	도 홍보관 운영 활성화	SE 위탁 추진
여성 가족관실	다문화 이주자 활용	이주여성식당 등 SE 발굴 육성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및 창업	SE와 연계

<표4> 충남도 실국별 연계 발굴 대상 분야 및 단체(예시)

충남도 경제통상실 내부 자료 자료

실국	대상사업	참여가능 단체
여성가족 정책관실	이주여성 문화체험·통번역,간병, 출장뷔페, 방과후 요리학습, 아기돌봄, 미용프렌차이즈 등	다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원, YWCA, 녹색소비자연대, 마을부녀회 등
경제통상실	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 전통시장, 상생협력사업, 전통시장주차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	시장상인연합회, 소비자조합, 저탄소녹색성장사업단체
자치행정국	마을가꾸기, 평생교육사업, 자원봉사활동 육성사업	새터민, 자원봉사단체, 자율방범대, 마을운영위원회 등
문화체육 관광국	청소년 학습지도, 문화해설사, 공연, 전통문화체험, 문화재수리, 스토리텔링, 옛길복원 등	문화예술단체, 청소년센터
농수산국	전통테마마을육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먹거리 생산, 전통음식생산, 어촌체험마을 등	영농조합, 작목반, 생산자조합, 귀농인협회, 농촌관광협회, 어촌계 등
복지보건국	자활지원사업, 제과제빵, 보육, 장애보호사업,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 집수리, 노인요양서비스, 노인택배, 청소용역, 무료세탁 등	장애인작업장,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환경녹지국	그린스타트실천운동, 환경보전, 재활용수거, 산촌체험마을 조성, 숲해설 등	환경단체, 수목원, 식물원, 재활용사업장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 재건축, 자전거타기운동, 도시재개발, 도시벽화사업 등	택지이주민조합, 건축가협회, 디자인협회 등

<표5>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허용촉진 대상사업

충남도 경제통상실 내부 자료 자료

부처명	사업명	사업내용	정부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 제공	발굴육성
	깨끗한학교만들기	▫ 학교 청소	진입촉진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육성
	마을기업	▫ 마을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지역NPO 등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마을기업 육성	발굴육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초·중·고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예술강사 파견	진입촉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 농어촌내 자생적 공동체 조직에 기업경영방식을 결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발굴육성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발굴육성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발굴육성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저소득취약계층 간병, 가사도우미 방문서비스 지원	진입허용
	장애아동 가족지원	▫ 장애아동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지원	진입허용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진입허용
	산모신생아도우미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진입허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	진입허용
	장애인복지일자리	▫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	진입허용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 자치단체, 지역민간단체, 유통업체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진입촉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 치유 서비스 제공할 전문기관 육성	진입촉진
고용노동부	디딤돌일자리	▫ 취약계층의 일경험 제공 (참여자 인건비 지원)	발굴육성
	사회공헌일자리	▫ 퇴직(예정) 중고령자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을 매칭하여 사회공헌 활동 지원	발굴육성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맞벌이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에게 급식 및 건강관리, 상담지원, 생활관리, 교과목보충지원, 전문체험 활동 등	발굴육성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청소년관련전문가가 청소년의 위기극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발굴육성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만 12세 미만 아동 돌봄	진입허용
	다문화가족언어 및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전문지도사 파견, 통번역서비스제공	진입허용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	▫ 초·중·고교 및 소외계층 공부방 직접 방문 교육(이론, 현장체험)	진입촉진
	문화재 상시 관리활동	▫ 문화재 상시관리, 경미사항의 신속 복구	진입촉진
산림청	숲해설	▫ 산림서비스로 숲해설사 지원	진입허용

3.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 1)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질과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 2) 사회적기업의 위탁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
- 3)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 사회적기업 박람회 등 개최
 - 홍보지원사업

4. 사회적기업 참여자(교육인력) 육성 노력

- 1) 인력 육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
 - 개인이나 사회적기업에만 교육인력 육성의 책임을 묻기보다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 및 지원책 마련
 - 각 분야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내실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체 육성
- 2) 대학(교대 및 사범대학)과의 연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참여인력 확보 지원
 - 대학의 교육봉사활동기관으로 교육분야 사회적기업 인정
 - 사회적기업 : 자원봉사 인력 확보 용이
 - 대학생 :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 확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대학과 사회적기업 연계 사회적기업 참여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대 및 사범대생의 사회적기업 진출을 통한 취업을 제고 가능성 모색

5.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시행

- 1)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준비중



사례발표 - 사회적기업 ‘(사)국선명상협회’

이종대((사)국선명상협회 사무국장)



숨결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건강기업
자연의 생명원리를 건강법으로 전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 개인과 사회를 만들
어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Recovering Health Program from DNA to Mind
Kouk Sun Do



(사)국선명상협회 자연건강증진사업단

www.kouksundo.com



Social Enterprise



세상에 건강한 숨결을 불어넣는
자연건강 전문 사회적기업

(사)국선명상협회 자연건강증진사업단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리고 긍정적인 심성을 갖도록 하여
행복한 가정, 학교, 직장과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건강기업이 되겠습니다.



(사)국선명상협회 자연건강증진사업단은

건강법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몸안의 의사로 불리는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양한방 전문의, 기체조 전문가, 명상전문가,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와 청소년, 직장인, 주부 등 연령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전문지도사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직접 전수합니다. 그리고 유병인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캠프를 운영하여 참가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과 고령노인들을 위하여 건강의료 기관 및 사회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건강을 돌보는데 경제적, 시간적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교육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성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을 돕는 전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이 조화롭게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사랑의 정신을 실천합니다.

경제우선의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성과 생명의 존엄이 상실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신의 수련을 통해 자아사랑과 이타심을 배양하고,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을 가꾸어 나갑니다. 생명사랑의 정신을 기업의 정신으로 실천하여 건강한 사회, 따뜻한 사회를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365일 36.5°C 사람과 사회의 체온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자연건강증진사업단은 모든 사람의 건강한 몸과 마음,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 심신수련법인 국선도의 수련법을 바탕으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자연 건강법을 연구 보급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건강한 몸과 마음, 정신을 되찾는데 기여하고자 설립한 기업이념을 실천합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심신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연건강법(운동법, 명상법, 식이요법, 마사지, 심리요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교육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바른성장, 자아존중감과 잠재된 창의력을 일깨우는 세이브 전인적 인성 프로그램과 자연건강법을 연구, 기획하여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나갑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 세상 가득 밝은 빛을 전하는 기업



건강복지에의 기여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생활습관병과 난치병,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합니다.

생명회복에의 기여

생명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정신을 고양하는 교육과 수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기치유와 봉사의 체험을 통해 이웃과 하나되고, 자연과 하나되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돕겠습니다.

사회성숙에의 기여

생명공동체로서의 인류애와 생명사랑의 실천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심신통합 건강법

노인건강, 청소년 바른성장, 지도자 양성



1 노인 건강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성인병,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강좌/ 시니어 건강마당/ 행복한 노년을 위한 명상 교실 등

2 어린이, 청소년 전인개발 프로그램 운영

학교, 공부방, 청소년 단체와 연계하여 바른 인성과 성장을 위한 전인적 인성 프로그램 위탁운영.
자아 존중감 세이브 명상캠프
바른 성장을 위한 성장체조교실.

3 직장인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스 제로 프로그램
휴프로그램 운영.

4 자연건강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청년, 주부를 중심으로 자연건강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 제공.
자연면역력을 높이는 운동법(기체조, 디톡스 체조, 허리강화체조, 교정체조)/ 명상법(치유 명상)/
호흡법(단전호흡, 가슴 호흡등)/식이요법(자연식, 채식)/마사지(독소배출 셀프 마사지)등을 배
우는 과정입니다.

5 명상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학교, 직장등에 나가 지도할 수 있는 명상 강사 과정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화를 조절하는 명상, 마음을 치유하는 마인드 힐링 명상, 행복한 관계 맺기 명상,
자신의 참다운 가치와 모습을 되찾는 '참 나' 명상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회를 위하여

행복의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한겨레 신문사와 휴' 계룡산센터 운영 (2010부터 현재운영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니어 건강마당' 운영 (2009~2010)
 전라북도 교육청 일반연수 청소년 심신수련과정 운영 (2000~2009)
 LG인화원 MVP프로그램 명상과정 운영 (2002~2005)
 (주) 신선 설농탕 직장인 휴 프로그램 운영 (2009~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소아암 환우와 가족을 위한 휴캠프'
 '푸드뱅크 가족을 위한 휴캠프' 운영
 여성재단, 아름다운 가게, 한 살림, 생협연대등과 휴 캠프 운영
 인천 예화여고, 전북 삼우초, 진안공고, 장계고, 솔내여고등 인성프로그램 진행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리더쉽향상과정 참여(현)
 공주시 노인회와 노인들위한 건강교실 운영(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국선도 노인 자연건강증진 기체조·명상교실(현)

Refresh Your Life From DNA To Mind
 Kouk Sun Do Health Program





건강한 세상 만들기,
국선도 자연건강증진 사업단이 앞장섭니다.



Kouksundo Natural Health Program 0 - 100 Ages



(사)국선명상협회 자연건강증진사업단

주소 충청남도 이인면 목동리 29-8번지 전화 041. 855. 6788
팩스 041. 858. 0256 이메일 kouksun@gmail.com

문제는 다시 ‘사회적경제’ 이다.

최준(함께일하는재단 LH사회적기업설립지원단 단장)

문제는 다시 ‘사회적경제’이다.

2011. 11. 2

최준 (함께일하는재단 LH마을형사회적기업설립지원단장)

1. 사회적경제를 찾는 이유를 분명히하자

- 노대명, 신명호의 예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음.
 - 지금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어떤 실천적 방식으로 세상과 사업을 대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일이 더 필요한 때는 아닌가?
 - 특히 한국사회는 사회적경제의 기초가 되는 상호부조 및 협동적 경제의 허약. 국가의 제도적 물적 토대로 조성된 사회경제조직의 규모가 큼. 이는 개념과 범주로만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오해와 왜곡의 우려 있음.

-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그리는 것이 사회적경제주의자들이 할
 -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건가요?
 - 생활에 필요한 노동을 하고, 쉴 때 즐겁게 쉬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사고하도록 교육 받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치료 받고 보호 받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고, 자동차 보다 사람이 먼저 길을 다닐 수 있고, 좋은 자연 환경에서 숨쉬며, 만인이 우리의 행복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가는 세상, 그런 꿈을 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시장은 이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지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를 시장에서 모두 구매해서 (함께 사는 지역의 공동체성 등은 구입 못하겠지요.) 특히 우리사회는 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지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라의 중장기 사회정책과 비전,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조세 정책 및 분배정책,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는 적

극적노동시장 정책을 포함 한 노동정책이 부재해 보이니까요.

이러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이 연대회의가 만들어가려는 사회적경제의 한부분입니다. 그 모습이 현재 다양한 사회적일자리로,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사회서비스의 사업으로, 제도화된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도화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지역화폐활동의 모습으로, 농업의 회생을 위한 노력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지역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를 보조하기 위한 로컬푸드 활동으로, 지역과 대상을 고려한 문화활동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배제와 그에 따른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으로, 교통권의 신장을 위한 활동,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열정적인 모습 등등의 **시민권적 사회권의 확장을 위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지역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연대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가 지나도, 아니 이 위기를 우리 삶의 질을 달리 하는 기회로 삼는 활동을 해보려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변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갈까, 아파트 값이 반등해도 변함 없을 만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것인가를 지역에서 만인과 지역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만인의 사회권(건강권, 교통권, 환경권, 생태권, 교육권, 여성권, 노동권, 에너지권, 문화권,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의 철폐를 위한 권리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모든 권리) 을 넓혀가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 결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그 제도화의 그늘에서 다시 부족하고 빈 구석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통해 대안을 신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 길일테니까요.

- 신자유주의는 우리의 생활과 삶을 이윤 축적의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리의 준비와 시장은 우리 삶과 생활의 재료들로부터 시작하자. 99 : 1의 사회에서 99를 생활로 조직하자.

2. 지역에서 우선 솔직하게 친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와 활동을 준비합시다. 멀리가기위한 불편한, 그러나 친절한 대화 모임.

사회적경제 주체 혹은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과잉과 결핍은?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이 바라는 개선 요구 내용은?	지역이 함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3. 다시 우리의 시각과 현실에서 사회적경제운동의 대장정 시작합니다.
- 볼로냐의 규모를 보는 것과 볼로냐의 전통을 보는 것 함께하기.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그 과제들

김민숙((사)씨즈 연구원)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그 과제들

2011. 11. 2

김민숙 ((사) 씨즈 연구원)

1. 생존을 위한 실체적 경제

물 v. 다이아몬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대표적인 학자로 언급되는 칼 폴라니 (Karl Polany, 1886-1964)가 제기했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바로 인간의 경제행위를 ‘실체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가 다룬 개념을 보면 ‘실체적 경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생산의 의미로서 사용을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이며 이에 반해 ‘형식적 경제’는 이윤을 위해 희소한 자원의 합리적 선택이며 이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이다. 그러면서 폴라니는 그의 유고집 『The Livelihood of Man』에서 공기나 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조건들은 희소성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형식적 경제에 해당하지 않는, 시장경제와는 수많은 다른 경제제도들이 인류 역사에 존재해 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실체적 경제’와 ‘형식적 경제’를 단순화 한 예로 물 한 병과 그만큼 부피의 다이아몬드를 비교해보자. 물은 희소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그 값은 매우 싼 자원이다. 이에 비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희소한 보석이므로 같은 부피의 물에 비해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과 다이아몬드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행할 경제행위는 무엇이겠는가?

물론 너무 지나치게 극단화 한 예이긴 하나 사회적 경제와 기존 주류 경

제의 차이를 든다면 이러한 차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 해도,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는 재화라 해도 시장경제를 통해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흔하디흔한 물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하고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는 경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인격과 관계를 통한 여성성의 경제

객관, 기계, 사물 v. 인격, 감정, 관계

칼 폴라니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20세기 서구의 심리상담가인 폴 투르니에 (Paul Touriner, 1898-1986)는 ‘여성, 그대의 사명은’이란 제목으로 번역된 그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La Misson de la Femme』에서 ‘남성은 건설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물의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관계와 인격, 감정 같은 주로 여성성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가치보다는 권력, 이성, 객관, 사물과 같은 남성적 가치가 서구 사회를 이끌어 오면서 자연을 대상화 하고 기계적으로 이용하며 개인의 가치와 감정은 무시되는 물 인격화된 산업사회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남성적 가치를 추구한 산업화의 결과는 자기 일을 좋아해서 신나게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 일을 싫어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대다수의 무리들의 부조화 현상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그가 여성적 가치와 남성적 가치를 대비하며 서술하고 있는 글 전반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와 주류 경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실체적 경제’와 ‘형식적 경제’가 지향하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시장 경제는 소비하는 대상과 주체 간에 객관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제 행위로 옮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 역시 인격이나 감정 같은 것은 전혀 교류되지 않는 기계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개인의 인격이나 감정, 소통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할 수도 없는 효율과 경쟁의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는

오히려 기존 시장 시스템에 개입되어서는 안 될 요소, 즉 여성적 가치로 무시되고 배제되었던 감정과 인격, 소통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경제행위 과정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충남 지역에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을 방문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투르니에가 적었던 글 그대로를 농촌 상황에 적용해 보면 ‘많은 이장님들과 위원장님들은 체험관과 창고 등을 짓고 장비를 사며 길을 닦는데 관심이 있었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마을들에서 권력과 사물에 집중하여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토건 사업 이후에 그것을 채워가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자 생각의 다양성, 자발적인 열심, 소통의 문제였다. 이 부분에서 많은 농촌 사업들이 하드웨어만 구축하고 내용을 채우는데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단 농촌뿐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 전체가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내용을 담을 틀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틀을 만드는 데까지가 기존의 남성적 가치로 끌어온 부분이라면 이제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안의 여성적 가치,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끌어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잘 되는 마을을 보면 이러한 남녀의 역할과 가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잘 융화되어 진행되는 곳들이다. 체험마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열심 있는 이장님을 위시한 남성분들이 애를 써서 좋은 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손님을 맞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호박 한 덩이, 직접 담근 맛난 된장 한 통이라도 싸주면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많은 부분 여성들의 역할(혹은 여성적인 이장님?^^)인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주요 분야인 돌봄과 교육, 각종 서비스 부분에서 실제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은 주로 여성들이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과 감정을 소통하며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관계를 맺는 경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여성들만의 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남성 중심 주류 경제에서 배제되고 무시되었던 감정과 인격의 영역을 살려내고 이 끌어내자는 여성성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농촌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사회적 경제 하자 하면서도 자꾸만 형식과 권력, 경쟁으로 기울려고 하

는 많은 남성들 안의 여성성, 아니마(anima)를 발현하여 더 이상 근엄하고 무심한 아버지의 경제가 아닌, 자식을 키워내는 세심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경제로서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다.

3. 실천의 과제들

철학과 세계관의 변혁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이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지역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별 경제행위의 주체들이 세계와 역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틀거리 자체가 달라야 한다.** 이는 앞서 사회적 경제가 실체적 경제, 인격과 관계의 경제라고 이야기 했던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적 경제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몬드라곤, 볼로냐 등 협동조합 전통으로 유명한 세계의 여러 지역들과 가까이는 원주에 이르기 까지 모두 카톨릭 전통과 사회주의 운동 등 기존 자본주의에 대응할 철학과 세계관이 바탕이 된 곳들이다.** 기존 주류경제를 추구해 온 방식의 세계관으로는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효율과 이용의 관계로 대상화 하고 인간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대안이 아니다. 한 때 유행하는 정책이나 경기 부양책만으로 취급되어져서는 승산이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세계를 대하는 철학과 가치관의 변혁을 이루어내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생명, 사람, 지역

그렇다면 그러한 세계관의 핵심 내용들은 무엇인가. 굳이 꼽아 본다면 생명과 사람, 지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있어야 한다. 역으로 지역이 살아있어야 그 안에 사람과 생명이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생명과 사람과 지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

계를 휩쓸고 다니는 금융자본의 탐욕과 서울 수도권 집중의 구조로는, 사람과 자원이 모두 빨려가는 상황에서는 이 땅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낼 사람도, 그 사람이 살아갈 지역의 터전도 모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작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문화, 교육

사회적 경제를 위해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몇 장 안 되는 카드들 중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카드들에 어떤 내용을 담아갈 것인가가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주요한 과제이다. 물론 경제 행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다종 다양한 업종의 주체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했던 보다 근본적 변화, **생명과 사람과 지역을 중시하는 세계관의 변혁을 일으키고 실제적 경제, 인격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문화와 교육 분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뿌리는 우리가 어떤 경제행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근거와 지향을 형성하는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젊은 일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통과 활동의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장**이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중 대표적인 충남교육연구소와 같은 사례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지역의 자존감을 높여내고 인간다움을 향유하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반은 무엇보다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서울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되기 위한 출발의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문화, 교육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들은 목적의식적으로 지역의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향유하며 협동의 경제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그 안에서 생명과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경제 주체들로 커 가도록 돌보며 지원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해당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은 그 고유 사업으로, 기타 타 업종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기업협의회 또한 자체 구성원들의 심화 교육 및 시민 연대 등으로 지속해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역시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및 정교한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보급 등에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내용을 담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흥동이 있기까지 풀무학교를 시작으로 한 오랜 역사의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일꾼들이 성장해 갈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 낸 제도나 정책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를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배연근((주)공생공소 농업회사법인 대표)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1. 11. 2

배연근 ((주)공생공소 농업회사법인 대표)

충남 농업지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무후무한 상태이다 또한 세계경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정보와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에는 사회적경제인식이 빠른시일내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 현 농촌사회의 문제로서는 대농과 소농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농 중심의 규모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더 심한 농촌경제 사회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대농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규모화하면서 노동비 상승 원자재 값 상승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물가인상대비 제자리거나 하락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규모화 되었어도 순수익은 증가하지 못하는 실태이다. 더욱 더 문제되고 있는 소농 및 고령농에 대한 농촌경제사회의 문제이다. 이분들은 열심히 농사짓지만 그에 대한 수익이 되지 않아 경제적 지위가 매우 하락되고 있다. 고령농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분들에게 지속가능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망과 제가격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이분들에게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켜 사회적 경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소농중심의 농산물센터나 농민장터 농민텃밭을 저렴하게 임대 및 소농/고령농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을 가공거점센터 건립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이는 지역 내 경제순환경제체제를 일으킬 수 있는 로컬푸드 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농촌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의 옛 품앗이 두레는 농촌에 없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이 모든 것을 없애 버렸다. 다시 우리 농촌의 협업 상생할수 있는 문화 복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적경제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 농민들에게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

현재 지식인들층에서는 농촌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흥성의 풀무학교를 예를 들면 그곳에 지식인들이 귀농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다 차 있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들이 어려운농촌에 유입이 되어 농촌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갈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농촌에는 농촌총각이 많이 있어 외국에 계신 분들이 농촌총각과 결혼을 하여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다.

농촌에서 다문화 가정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농촌에는 유교적 문화에 대한 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로 인한 문제로 가정이 파탄을 겪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중 또 다른 한가지는 신부와 신랑 학력차에 의한 지식차이이다. 그로 인해 이주여성들은 지적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펼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예로 필리핀 이주여성은 영어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능력이 있어 농촌 지역에 방과후 수업에 이 필리핀여성이주민을 활용하여 농촌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각계 이주여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MEMO

MEMO

MEMO

MEMO